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

성경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 ~ 11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7]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8]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9]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11]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배(제사)드리는 방법이나, 성구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글로 하나하나 언급하다 보니까, 길어지게 되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통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특별한 사명이 있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두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명의 자리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사람, 브살렐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안목과 손기술이 필요한 일을 위하여, 브살렐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야기하실 때, 그가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힘(재능)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증거입니다. 그도 자신의 머리털이 상징하는 나실인으로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혼동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힘(재능)만을 의지하였을 때, 어이없이 그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탁월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루고 계시는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6]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성막)를 세우는데, 자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실히 브살렐과 같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브살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홀리압은 브살렐과 같은 재능은 없었지만, 함께 하는 사람으로 조역자가 되며, 주위 사람들을 세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브살렐 혼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하였는데,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캄(חָכָם)”이 쓰였습니다. “하캄(חָכָם)”은 “지혜로운, 숙련된, 경험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잘 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 반복적인 일들이 사람을 숙련시키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적인 순종과 경험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여기시며, 또한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람과 지혜로운(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협력하게 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브살렐이 아니어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어도, 하나님은 브살렐과 동일한 부르심과 인정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또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소서.
2.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조력자로 쓰임 받게 하소서.